

[탐방노트]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 2차전지 업체가 증설하면 매출이 폭발한다

Analyst 나정환 02-709-2624

CP 3,810원 | 시가총액 1,998억 원 | 수익률 1M -5.1%, 3M -28.3%, 6M +16.2%, 1Y +38.1%

기업개요

- 동사는 지난 2000년 5월 설립되어 2차전지 생산설비와 평판디스플레이(FPD) 검사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2차전지 공정 중 조립공정에서 음극과 양극의 탭을 만드는 Notching 설비와 2차 전지를 감는 Folding 설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Folding 과정에서 전지를 쌓는 Stacking 기술 등 2차전지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생산설비가 96.3%를 차지하고 나머지 3.7%는 FPD 매출이다. 전체 매출의 33.9%가 수출이고, 나머지 66.1%는 국내 매출이다.

투자포인트

- **[국내외 2차전지 업체의 증설로 동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됨]** -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외 2차전지 생산업체의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소비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 내 2차전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차 전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의 2차전지 생산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있어 동사의 수주량 증가도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LG화학 등 2차전지 생산업체로부터 2차전지 생산장비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동사의 매출이 1,300억 원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규모의 경제 효과로 영업이익률도 상승 중]** - 2차전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동사의 과거 3년 평균 OPM은 5%를 소폭 하회하였지만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OPM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2018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2.1%p 증가한 7.6%를 기록하였다. 향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의 OPM은 7%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 **[공유버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형 '우버'에 주목하자]** - 동사는 2차전지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위즈돔'의 지분 25.98%를 인수하면서 공유 버스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였다. 위즈돔은 '우버'와 비슷하게 앱 기반 공유버스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업체로써 현재 광역 M버스나 G버스를 출근시간에 예약하는 앱인 '굿모닝 MiRi'와 출퇴근 버스 예약 앱인 'eBUS'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위즈돔은 더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시로부터 독자적인 50개의 버스 노선을 오는 3월내에 획득하고 출퇴근 버스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라 향후 성장성을 기대해 볼만하다.

Financial Data					
12월 결산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Q
매출액	-	604.5	749.2	1013.5	752.9
영업이익	-	32.1	30.2	46.4	56.9
영업이익률(%)	-	5.3	4.0	4.6	7.6
세전이익	-	39.4	47.3	15.4	54.4
당기순이익	-	33.9	39.9	11.3	41.1
EPS(원)	-	113	133	35	102
증감률(%)	-	-	17.7	-	-
ROE(%)	-	11.8	12.2	2.9	-
PER (배)	-	20.8	20.4	67.1	-
PBR (배)	-	2.3	2.3	1.8	-
EV/EBITDA(배)	-	15.4	16.5	25.5	-

자료: 디에이테크놀로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